

## 프랑스 민간 은행, 정부보조금 상환 예정

BNP Paribas 등 프랑스 6개 대형은행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조기에 상환했거나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상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프랑스 은행의 정부보조금 상환

- 2008년 경제금융위기에서 정부 지원자금을 받은 6개 프랑스 대형 은행들은 지원금 조기 상환을 통해 보수 지급 등에 자율성 회복을 기도
- 올해 11월 초까지 은행들은 국가가 지원한 198억 유로 중 원금 133억 유로와 이자 7억 유로를 상환할 예정
- 이와 같은 정부 간섭의 여지를 줄이려는 의도에 대해 여론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

### ○ 은행별 지원금 조기 상환

- **Crédit Agricole**(크레디 아그리폴)  
채권발행을 중심으로 자본을 조달하여 SPPE가 인수한 최우량 후순위 채권(TSS:titres super subordonnés) 30억 유로(금리 8.33%)를 10월 27일에 상환할 것이라고 발표(2009.10.14).

※ **SPPE(Société de Prise de Participation de l'Etat**, 국가참여회사는 2008년에 설립된 정부의 민간기업 자본금 지원 통로

- 은행측은 크레디 아그리폴 그룹의 탄탄한 재정상태, 그 중에서도 **Crédit Agricole S.A.**가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Tier 1 자본이 9.2%, Core Tier 1 자본이 8.6%에 이르는 높은 자기자본 수준(437억 유로)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크레디 아그리폴은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준비자금으로 올해 6월(금리 9.75%)과 10월 초(금리 8.375%)에 총액 23억 5천만 달러의 **영구채권(placement d'obligations perpétuelles)**을 발행한 바 있으며, 10월 14일 5억 5천만 유로(금리 7.875%)와 3억 파운드(금리 8.125%)의 채권을 발행
- **BNP Paribas**(BNP 파리바)
  - 정부 지원금 반환을 위해 **주식을 발행함**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
  - BNP Paribas는 자기자본 **43억 유로**를 확충함으로써 **Core Tier 1 자본이 7.1%**에 이르렀는데, 주식 공개모집의 청약률은 250%(10월 22일)
  - BNP Paribas는 **SPPE**가 보유하고 있는 51억 유로의 우선주를 매입하여 소각
- **Société Générale**(소시에떼 제네랄)
  - 자기자본을 **48억 유로**까지 확충(2009.10.6)함으로써 **Core Tier 1 자본은 8%**에 이룸
  - 소시에떼 제네랄은 이미 **Tier-1**으로 인정되는 증권 발행으로 **10억 달러**를 확보한 상태
  - 동 은행은 **2009년 말** 혹은 **2010년 초**에 SPPE가 보유한 우선주 **17억 유로**와 최우량후순위채권 **17억 유로**를 매입 소각할 것임.

- **Crédit Mutuel**(크레디 뮈뮈엘)  
정부 지원금 12억 유로를 SPPE에 전액 상환
  - **BPCE** (Banques Populaires Caisses d'Epargne)  
70억 유로의 정부 지원금 상환을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에 포함될  
영구채권과 최우량 후순위 증권(TSS)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
- BPCE는 채권과 증권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발행 주간사인 **Deutsche Bank, JPMorgan, Natixis**에 위임한  
상태이며, BPCE 대변인은 발행 증권의 금액과 금리, 모집 마감일은  
투자자들의 관심에 달려 있다고 지적
- BPCE의 실제 상환 규모는 5억 유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동 은행은  
2015년 4월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영구 최우량 후  
순위 채권(금리 9.25%) 발행을 통해 7억 5천만 유로를 이미 확보한 상태
- BPCE는 프랑스 은행 감독기관인 은행신용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SPPE가 보유 중인 은행 자본금의 19.84%에 이르는 우선주를 **2010**  
년에 매입 · 소각할 예정임을 발표

### 프랑스 정부 지원금과 이자

(유로)

구 분	지원금 총액	지원금 상환시 지불 이자
BNP Paribas	우선주 51억	2억 2,600만
Société Générale	TSS 17억, 우선주 17억	이자 1억 2,500만, 배당 6,000만
Crédit Mutuel	TSS 12억	8,200만
Crédit Agricole	TSS 30억	2억 2,000만
BPCE	우선주 30억, TSS 40억	N.A.
총 액	197억	7억 1,300만

유럽 대형 은행들의 자본화 수준 비교  
(2009년 6월 30일자, Core Tier-1)

은행	Core Tier-1	은행	Core Tier-1
Barclays(영국)	8.8%	Intesa Sanpaolo (이태리)	6.9%
Deutsche Bank(독일)	7.8%	BNP Paribas (프랑스)	7.1%
UniCredit (이태리)	7.7%	Crédit Agricole SA (프랑스)	8.6%
Santander(스페인)	7.5%	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	8.0%
BBVA(스페인)	7.1%	BPCE (프랑스)	N.A.

○ 국가 지원금 조기 상환 의의와 관련 논쟁

▪ 의의

- 프랑스 은행들의 정부 지원금 조기 상환은 자본 확충과 정부의 간섭을 피하려는 유럽 은행들의 일반적인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함
- 주식시장의 반등과 하이브리드 채권시장의 회복이 최근 상황의 배경 (Bernard de Longeville, Standard's & Poor's 은행부문 책임자)

▪ 논쟁점과 해결 방안

- 은행들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났기에 국가 지원금을 상환하는 것 일뿐, 대출 확장이나 보너스 지급 규제와 같은 정부의 권고 및 요청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며, 경제 침체에 정부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여신 증대 등 도덕적 의무를 완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BNP Paribas 은행장 Baudoin Prot)
- 대출 확장: 은행들은 대출을 3~4% 늘리라는 재정경제부의 요구에 따라, 2009년 대출금을 3% 증가시킬 계획
- 보너스 규제: 은행 경영자들에 대한 스톡 옵션과 무상주 부여를 금지하고 트레이더들의 보너스 제한 규정들을 도입할 예정

<파리사무소 제공>